뉴스홈 | 최신기사

16년 만에 희비 갈린 '한반도 더비'

송고시간 | 2009-04-01 22:14



















배진남 기자 기자페이지



<월드컵 축구> 골이다!

(서울=연합뉴스) 이지은 기자 = 1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10 남아프리키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김치 우가 골을 넣은 후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. 2009.4.1

jieunlee@yna.co.kr

(서울=연합뉴스) 배진남 기자 = '한반도 더비'에서 16년 만에 남북한의 희비가 엇갈렸다.

한국이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홈 경기에서 북 한을 1-0으로 눌렀다.

한국은 이날 경기 전까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5승7무1패로 북한에 앞서 있었다.



하지만 승패가 엇갈린 여섯 차례 격돌에서 다섯 경기가 한 점 차 승부였을 만큼 객관적 전력을 떠나 한 치 양보 없는 싸움 을 계속 해왔다.

두 팀 대결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난 경기는 한국이 3-0 으로 이긴 1993년 도하에서 열린 미국 월드컵 예선전이었다.

핫뉴스 →

1010到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

<월드컵 축구> 캡틴 삼각편대를 돌파하라

(서울-연합뉴스) 진성철 기자 =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-북한전에서 박지성이 북한 선수 세명에게 둘러싸인 채 드리블하고 있다. 2009.4.1 zjin@yna.co.kr

게다가 2005년 8월 전주에서 열린 동아시아선수권대회(0-0 무 승부)부터는 내리 다섯 경기 연속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.

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나서 지난해에만 북한 과 무려 네 차례나 맞붙었다.

결과는 역시 모두 무승부였다.

지난해 2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전 반 염기훈(울산)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후반 정대세(가와사키)에 게 동점골을 내줘 1-1로 비겼다.

또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두 차례 격돌에서는 북한의 밀집수비를 뚫지 못하고 각각 0-0으로 비겨 승점을 나눠 가졌다.

운명의 장난처럼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도 같은 조에 속해 지난해 9월 치른 1차전에서는 홍영조(FK로스토프)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기성용(서울)의 A매치 데뷔골로 균형을 맞췄다.

결국 김치우(서울)의 프리킥 한 방으로 남북한의 맞대결 무승부 행진은 다섯 경기로 끝이 났다.

hosu1@yna.co.kr

♂ 관련기사

<월드컵축구> 김치우, 허정무호 새 해결사(종합)

<월드컵축구> 박지성 "본선행 빨리 확정하고파"

<월드컵축구> 북한 감독 "매우 불쾌하다"

김연아 태극전사 응원 "경기장 참 크네요"

-월드컵축구- 김치우, 북한 격파 결승골(종합)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4/01 22:14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에디터스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뜮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□ 144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6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👺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**광고**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,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.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nnev